

'백두산 통일 법회'

불자 1천여명 민족혼 찾기 발원

광복 50주년을 맞는 올해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을 찾는 불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광복절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의 방북이 허용됨에 따라 불교계에 평화통일 기원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조계사를 비롯 사찰과 신원단체들이 주최가 돼 10여개의 기행단 1천여명이 백두산에서 통일법회와 법회를 봉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계사(주지 환근스님) 성지순례단은 6월15일과 7월13일 두차례에 걸쳐 백두산 천지에서 평화통일기원을 위한 대법회를 봉행했다. 3백여 순례자들은 소림사, 옥봉사, 용문사굴 등의 사찰을 돌아볼 예정이다. 부산불교텔레비전 부산지사

들의 가슴을 한층 일렁이게 하고 있다. 국토통일 기원제는 '광복 50년 통일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사부대중 3백여명의 불심이 한데 어우러져 부처님의 통일법음을 온누리에 전하게 된다. 특히 광복 50주년 공식행사로는 불교계 유일의 행사인 동쪽나라 어린이국토순례단의 백두산 천지단군제는 어린 불자들이 통일에 대한 서원을 마음껏 펼친다는 점에서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순례단은 연변어린이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연극 '단군 왕검' 공연도 갖게 된다. 중국연변 태평소학교 초청으로 7월27일부터 8월1일까지 중국을 방문하는 제주도 우담바



1천여 불자들은 광복 50년을 맞아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을 찾아 통일기원을 염원할 예정이다.

조계사·부산bfn·동쪽나라 등 순례일정 밝혀 일상적 관광여행 지양 불심고취 계기 돼야

지사장 우관수)도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회장 정관스님)와 공동으로 8월 15일 백두산 천지에서 '국토통일 기원제'를 실시한다. 동쪽나라(발행인 김형근) 국토순례단은 8월15일 백두산에서 '단군제'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광복 50주년을 맞는 불자

리어린이 합창단(단장 정우스님) 30여명도 통일기원을 위한 공연을 개최할 방침이다. 단장 정우스님은 "대자대비한 불법이 가득 담긴 음성공양을 통해 한국불교를 알리는 사절단 역할을 특별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두번째를 맞는 월간

정도(발행인 법륜스님)70여명도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제2회 백두산 및 발해의 유적지 역사기행'을 떠난다. '민족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떠나는 이번 기행은 도보로 백두산을 등정, 천도재를 시작으로 고구려의 광개토태왕비, 발해의 서고성 등도 두루 순례하며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로 알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오는 7월말과 8월초로 예정돼 있는 일주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방북일정이 구체화 될 경우 스님의 일정에 북한불교 지도자들과 함께 하는 백두산 성지순례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불교계에서 광복50주년을 맞아 백두산 기행단들이 줄을 잇는 것에 대해 불자들은 "불심으로 통일기원을 발원하기 위해 백두산을 찾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너무나 할것없이 우수축순격으로 동참해 본래의 취지와는 갈맞지 않은 일상적인 관광여행도 배제할 수 없다"며 "통일하는 불자들이 통일기원법회를 올리는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중근 기자

만화 법구경

현자의 장대지와 같이 너그럽고 문지방처럼 의부를 다하고

이 할원

승님이 가지자면 같겠지요 말이 많소

여보슈 재중 중 심한 곳이라고 승차 거부할 거요?

여기서 명동까지 라면 걷는것이 더 나을 텐데

명동으로 갑시다

택시

무슨 오해를 하셨나 본데 차 타는것 보다 걷는편이 더 빠를것 같아서 한 말입니다

히히히 우리가 세계 나가니깐 꼭 꼭네

요새 택시기사들 모두 저 모양 이더라구

기사양반 수입에 지장 받으면 같은 방향 합승시키슈

열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잘 길들인 말처럼 모든 감각이 관관하고 교만과 번뇌를 끊어버린 사람은 신들까지도 그를 부러워한다

알려 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저 정류장에 세워드리면 되겠지요

아... 에...

택시

두배! 아니면 세배 줄게요

택시를 타시려면 정류장에서 줄을 서야죠

어디로 모실까요?

저... 번... 번두리동 까지...

목적지를 말하는것이 그렇게 어렵 나요?

번두리다가 가면 나옴 번차로 나오 게 된다고

모두들 멍그리고 있어해서 더구나 온 식구가 같이 타매는 더...

히히히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멍그리다고 해서 사람이 내려 주겠 습니까

서로 기분만 나쁘지요

순리대로 마음 편히 한다면 온 줄 더 바는 것보다 더 큰 덕을 얻을 수 있는 법이죠

대지와 같이 너그럽고 문지방처럼 의부를 다하고 흥망이 없는 호수처럼 맑은 그같은 사람에게 윤회는 없다

연세가 높으신것 같은데도

마음을 그렇게 가지셔서 그런지 꼭 짙어 보이 습니다

히히히 그렇까지 봐주시고 감 구려

바른 지혜로 해탈하고 평안을 얻은 사람은 마음이 잔잔히 가라앉고 만과 행동도 조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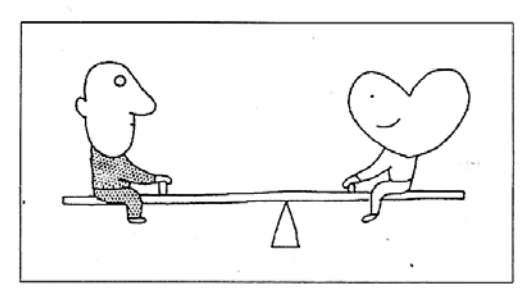
사특한 믿음 없이 윤회의 줄을 끊어버리고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욕망을 버린사람 그는 참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 절대만 무위(無爲)와 열반을 가리킴

마음과 뇌의 기능은 동일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뇌는 우리가 육안적으로도 볼수가 있고 그 기능을 실험해서 결과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음의 존재는 우리가 뇌를 보듯이 그런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적극적으로는 마음은 근본적으로 모두 뇌의 활동이다 라고 확신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마음이란 용어가 주는 의미가 단순한 의학적 대상이 되는 뇌의 구조나 뇌의 기능이라고한 설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없지 않다. 발구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마음을 이

작용이 어떻더나 하는 설명만으로는 마음을 설명하는데 충분치가 않다는 말이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마음이란 단어가 과학적으로는 대단히 보호하고 경계해 두렷치 못하며 과학의 대상이 되기도 어렵다는 말을 한다. 그래서 마음은 종교나 철학에서 다룰 문제라고한 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인간이 지니는 마음이



가 있을 것인 가짐이다. 더러는 지금의 의학수준에서 신경전달물질의 양이나 질에서 구분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아직은 초보단계이다. 이런 연구가 성공을 한다면 아마도 깨달음의 내용도 차등화시킬수 있는 객관적인 징표를 볼수가 있을 것이다. 깨달은 사람이나 깨달지 못한 사람이나 말로하면 같은 말이라도 뇌의 기능 자체가 다를 것이다.

마음은 만상의 본체이고 한 생각의 그림자

방법으로는 볼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란 것과 뇌의 기능이란 것을 따로 구분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의학자들 중에는 마음이란 것이 적어도 뇌의 활동과 무관

렇게 적은 것이 있다. 마음은 우주의 근본/만상의 본체이고/한 생각 튀어나온 그림자이네/이 마음 고요속에 착한 일 생각하면/거울속 알굴처럼 언연이 일치하리. 이런 마음의 실체를 단지 두뇌의 모습이 어떻더나. 기능이 어떻더나 아니면 뇌세포의 전자화학적

인체와 더불어 있다면 이또한 마땅히 의학의 대상이 되어야 옳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실험 뇌의 기능이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능이 아직 지금의 의학적 수준으로는 완벽하게 규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학과 종교의 영역으로 남겨 두고싶어 하나요.

앞으로 뇌의 기능으로 마음이 설명되어지는 날이 온다면 아마도 도에 이른 성숙한 마음과 미숙한 경지에 있는 마음의 상태가 객관적으로 구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가령 도가 높은 분의 마음은 뇌기능상 미숙한 뇌기능에 비해 무엇인가 뚜렷한 증거



<26>

마음과 뇌의 기능

방법으로는 볼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란 것과 뇌의 기능이란 것을 따로 구분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의학자들 중에는 마음이란 것이 적어도 뇌의 활동과 무관

힐링인물 건강하게
건강인물 마음 건강하게

당뇨
위장·변비·천식 등
질병상담

전화 (02)552-1470(대) / 팩스 562-3205
문의시 상담 및 자료부주
주소:강남구 역삼동 827-4 금삼B/D 2층

사찰터 입야 9천평

■ 청주근교 보은방향 그린벨트 지역(사찰가능)

□ 2천평은 사찰터로 시주
□ 7천평은 1억 4천에 매매

연락처 : 0431-66-0958 이공래

산심 깊은 보살님 두 분만 찾습니다

조용한 절에서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살아갈
산심 깊은 보살님 두 분에게
무료로 침식제공하오니
뜻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 사실곳
경기도 양평군 불광산 정토원
■ 연락처
서울 238-3285, 233-2500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수시접수
(지방수련장 상담 환영)

수련과정: 단전호흡법, 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
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02)735-6795 · 6796
팩스 (02)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해창

經營管理職招聘

當社は Group 계열사로써,
기업상장을 대비하여 지점경영에
참여할 능력있는 경력인사를
널리 초빙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응시자격
기획관리	• 연령: 만 35-60세
경영관리	• 학: 公 · 社 · 社 卒 程度 以上
영업·홍보	• 경력: 3년 이상

2. 제출처: 종로구 관훈동(계사 100m)전

3. 접수기간: 95년 6월 19일 ~ 26일

상담문의: 737-0588~9

여직원 급모집

탄허 불교 문화재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용모 단정한 여직원을 모집합니다.

■ 다음
• 여고 졸업자 약간명
• 30세 미만
• 불교 신자 또는 불교 활동을 한 자
• PC 가동자

■ 제출 서류
• 이력서 1통(반영합판 사진부착·전화 연락처 기입)
• 자기소개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방문요함)

제출처: 서울 종로구 신림3동 368-100
전 화: 237-4438

탄허 불교 문화재단

종교 및 불교건축 목재

■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방부제 목재(원목) 수입품에
■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유통B/D (올저로 2가)
전화:(02)266-2629, 404-9521 팩스:(02)266-2679

석조각의 명문 동양석재

• 일찍이 홍익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 전통 불교문화 창달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작품 제작을 일념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사오니
• 대덕 스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 바랍니다.

조각가 이규동 합창
대표 이규영

동양석재 주간:(0357)541-4705
야간:(0351)847-2001

명문대가집
현미자기비법

2분도현미 (약기 아깝다)
3분도현미 (약기 싫다)
4분도현미 (약기 더럽다)
5분도현미 (약기 더욱럽다)
6분도현미 (약기 더더욱럽다)
백미10분도 (없는이전혀 없다)

“입맛대로 주문, 배달”

조상의 영혼 지키는
쌀바르게먹기운동중앙회
TEL (02)231-5421~2
235-1846~7